



한덕수 국무총리, 「사라 두테르테」 필리핀 부통령과 면담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1일(목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사라 두테르테(Sara Duterte)」 필리핀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△양국관계 △교역·투자 △교육·개발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.
- 한 총리는 두테르테 부통령의 「2023 글로벌 교육혁신 서밋」 참석에 감사를 전하고, 필리핀이 아세안 국가중 우리와의 최초 수교국(1949년)이자 한국전쟁을 통한 혈맹으로서 양국 관계가 지난 70여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였다.
 - 두테르테 부통령은 한 총리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, 오늘 디지털 시대의 교육혁신에 관한 의미있는 행사에 참석하여 기초연설을 진행하고, 양국간 교육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하였다.
- 한 총리는 올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서명된 한-필 FT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해 지난해 사상 최대규모(175억불)를 기록한 양국간 교역이 더욱 발전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.
 - 또한, 300개 이상의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있다며, 필리핀내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하였다.
- 양측은 앞으로 보다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△원전 △공급망 △군사방산 △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.

- 특히, **한 총리**는 우리 정부가 필리핀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만큼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며, 개발협력 분야 협력도 지속해나가자고 하였다.
 - 두테르테 부통령은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, 필리핀 취약계층 지원 등 한국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.
- **끝으로, 한 총리**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기후변화, 기술개발, 포용적 성장 등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플랫폼을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 박영철	044-200-2136
	외교안보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 이채영	044-200-2139

